

# 법정스님 오랜 제자가 돌아본 '무소유 삶'

법정 스님의 뒷모습

정찬주 지음



“입적하신 스님이 그리울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다. 한번은 스님께서 국수를 끓이고 설거지

당반을 맞았을 때다. 스님께서 삶은 국수를 불일암 우물가로 가져가 찬물에 행구어 식히는 와중에, 꼬들꼬들해진 국수 몇 가닥이 우물 밖으로 넘쳐흐르는 물에 떨어졌다. 순간 스님께서 망설임 없이 국수발을 주워 드시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신도가 수행 잘하려고 보내준 정재(淨財·맑은 재물)”인데, 진정한 수행자란 상당이나 하는 카운슬러가 아니라 설명 없이 행동으로 가르침을 준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본문 중에서)

바로 보이는 앞보다 뒷모습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인 경우가 많다. 감출 수 없는 표정이 있기 때문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역사적 인물과 수행자들의 정신세계를 탐구해온 작가 정찬주가 법정스님과 그의 인연을 성찰해온 흔적들을 한권의 책으로 펴냈다. ‘법정스님의 뒷모습’은 지



법정스님이 불일암에 거처했을 당시 앉았던 ‘빠빠옹 의자’를 형상화한 일러스트레이션. <정찬주 작가 제공>



법정스님 생전 모습

난 2010년에 입적한 법정스님의 숨겨진 일화들을 매개로 써내려간 산문집이다. 그동안 저자는 스님의 일생을 소설화한 ‘소설 무소유’, 수행자들을 찾아온 닌 기행 산문집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 등 불교와 관련된 책들을 펴냈었다.

이번 산문집은 과거 법정스님의 저서 담당 편집자로, 각별한 재가제자로서 스

고인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대부분의 고승들이 꽃으로 장식한 운구차에 실려 갔지만 스님은 당신의 유언에 따라 그러지 않았다. 누운 스님을 가사 한 장으로 덮은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스님의 그 모습은 송광사를 찾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때 나는 뒷모습이 참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책에는 대통령의 청와대 초대를 거절할 정도로 권력자를 멀리한 이야기, 작가가 불일암에서 스님에게 범명과 계명을 받고 제자가 된 일화, 스님에게서 나관 없는 현관 글씨를 받은 이야기, 스님이 대원각 땅을 시주받아 김상사를 장건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스님의 가풍을 이어받아 저자가 하루하루 일거하는 화순 이불재의 산중생활, 법정스님을 추모하는 글 등이 담겨 있다. 주옥같은 글들을 통해 지비와 가르침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그날 김상사 법당에서 스님의 마지막 말씀이 된 법문의 요지는 생의 덧없음이었다. 덧없음을 깊이 자각해야만 어둔 생애에 환한 불이 켜지는 것이 아닐까. “불날은 갑니다. 덧없이 갑니다.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듣기 바랍니다.” 불남이 어떻게 오는지 남의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각자가 불소식을 느껴보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다. 덧없는 생애니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반어법의 가르침이다.” <한결미디어·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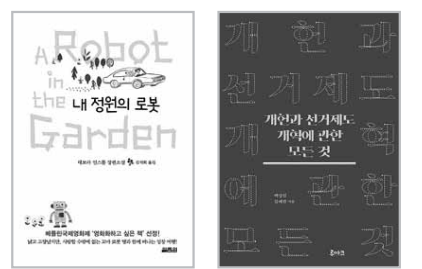
▲내 정원의 로봇=집집마다 안드로이드가 집안일을 대신하고, 거리에도 AI(인공지능)가 넘쳐나는 미래의 영국. 그런 시대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낡은 집과 고물차를 고집하고, 안드로이드는 결사코 반대하는 남자가 있다. 직업도 없이, 집안일도 하지 않으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남자, 벤. 어느 날, 그의 정원에 더럽고 망가진 구식 로봇이 나타난다. 구식 꼬마 로봇 ‘랭’에게 안드로이드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낀 벤은 그를 고쳐주기로 마음먹는다.

<엘림원·1만5000원>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것=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쟁점을 쉽게 정리한 안내서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개헌 문제를 다룬다. 지난 70여 년간의 한국 헌정사를 뒤돌아보면서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2부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다룬다. 선거와 선거제도의 기본 개념들을 살펴본 뒤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변천사를 되짚어보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낸다

<루키·1만3000원>

▲지(知)의 실패=지구온난화 문제, 성추진 오존층 파괴 문제, 환경호르몬 문제, 핵폐기물 처리 문제, 유전자변형작물의 안전성 문제 등 치명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책은 지금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가 과학기술의 발전



이 초래한 사회문제임을 상기시키며, 그것을 ‘지(知)의 실패’로 규정한다. 그리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다양한 담론만이 넘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상복·2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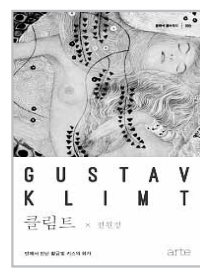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아=이 책은 N포 세대, 저출산, 울로, 딩크, 모성에 강요, 난임 시장의 폐쇄성, 어르신들의 언어폭력, 국가 시스템의 한계, 엄마가 아니면 배척하는 문화 등 한국의 가족주의 사회에서 아이 없이 사는 여성들이 겪는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결혼·출산·모성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아이 없는 삶을 택한 여성들이 오롯이 자신을 마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책이다.

<부키·1만3800원>

# ‘클림트의 도시’ 빈에서 만난 거장의 삶

클림트

전원경 지음



“모든 예술은 에로틱하다.”

발칙하게 느껴지는 이 도발적인 말의 주인공은 바로 화가 클림트다. 황금으로 장식한 서로 꼭 끌어안고 있는 연인을 그린 그의 대표작 ‘키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인 이 그림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하지만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려서 독특하고 매력적인 그림을 탄생시킨 오스트리아의 화가 클림트(1862~1918)에 대해 묻는다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2018년은 클림트의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다. 책을 통해 클림트를 새로 만나는 특별한 예술기행이 마련됐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외래교수인 전원경 씨가 펴낸 ‘클림트’는 클림트의 삶의 무대에서 황금빛 예술의 탄생지까지를 아우른다. ‘빈에서 만난 황금빛 키스의 화가’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간직한 모순의 화가 클림트의 세계를 보여준다.

책은 월간 ‘객석’과 ‘주간동아’의 공연 및 문화 담당 기자였던 저자의 특유의 문체와 식견이 담겨 있다. ‘클래식 클라우트’ 시리즈의 세 번째로 발간됐으며,

클림트라는 거장의 삶과 예술의 공간 등을 조명한다.

저자는 빈에서 라벤나에 이르는 ‘클림트의 길’을 따라 걸으며 각각의 장소의 의미와 그곳에서 그림을 그렸던 클림트를 상상한다.

“빈이 클림트의 도시인 것은 단순히 클림트가 빈에서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클림트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는 빈의 자취가 드러난다. 빈의 세기말 분위기, 빈의 귀부인들, 빈의 과잉 장식 취미, 빈의 과거 지향적 가치관, 빈의 화려한 궁정들, 그런 모든 요소를 클림트의 그림에 스며들어서 때로는 희미하게, 때로는 클림트의 사인만큼이나 선명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그래서 클림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순으로 가득 찬 빈과 오스트리아 제국을 먼저 이해

야만 한다.”

저자는 클림트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자신의 사생활은 물론, 작품에 대해서도 기록으로도 남기지 않았다. 단지 “화가로서의 나를 알고 싶다면 내 그림을 주의 깊게 살펴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저자는 오스트리아 빈을 ‘클림트의 도시’라고 주장한다. 처음 도착한 빈 국제공항의 벽면에 커다랗게 ‘키스’ 이미지 가 사람들을 반기고 ‘키스’를 보기 위해 연간 백만 명의 방문객이 빈 벨베데레 미술관을 찾는다. 그로 인해 예술의 도시 빈 전체가 마치 클림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거대한 전시관 같다고 기억한다.

“클림트의 그림에서 받는 독특한 느낌과 기묘한 불균형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빈의 모습 그 자체다.”

<arte·1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어린이를 위한 마음공부=이 책은 초등학교 2학년인 이슬이가 1년 동안 쓴 일기를 통해 어린이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을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고, 부정적인 기분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학교나 가정 등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에피소드라서 더 재미있고 유익할 뿐만 아니라, 따스한 그림과 함께 어린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책이다.

<보랏빛소·1만3500원>

▲황금 이파리=어느 날 숲 속에 돌아간 황금 이파리. 이를 본 숲 속 동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갖고 싶어한다. 새가 맨 처음 황금 이파리를 물었지만 곧바로 다람쥐에게 빼앗기고 마는데... 마지막에 황금 이파리를 차지한 동물은 과연 누구일까? 혼자 가지려고 욕심내면 잃어버리기 쉬운 소중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아름다운 그림을 보며 철학적 메시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책이다.



<주니어김영사·1만5000원>

▲한입만! =송정마을 그래픽 시리즈. 마을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책 작가들이 새롭게 구성하여 창작한 그림책이다. ‘한입만!’에는 어른들의 어린 시절을 함께 해 온 도깨비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한입만!’을 그리고 쓴 김선배 작가는 개성 넘치는 도깨비와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 여기에 리듬감 있는 글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며 아이들을 책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한울림어린이·1만2000원>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 완벽방수
- 내구성보장
- 2중단열
-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 시공전

2. 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 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파트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H.P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독포 (061) 284-0485

여수 (061) 683-0485

순천 (061) 726-0482

광양 (061) 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